

아함경



“명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출전 : 남전 상응부경전.9.11〉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옥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숨을 들이쉬고 있음을 안다.
숨을 내쉬면서, 나는 숨을 내쉬고 있음을 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나 자신을 고요한 물이라고 생각한다.
숨을 내쉬면서, 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나 자신을 무한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숨을 내쉬면서, 나는 자유로움을 느낀다.

탁났한 '마음을 멈추고 다만 바라보라' 중



책임 싸움에 슬퍼하는 국민

국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선제는 다리가 떨어지거나 건물이 무너진 일도 없는데 왜 행정자치부 장관을 해임하려 하는지 궁금했다. 올해도 잊지 않고 반복될 수 해 때문에 그런가 하는 추측도 해보았다. 해임건의안 보도만 무성할 뿐 왜 그런지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언론의 틀을 비집고 알아낸 이유는 지난 달에 있었던 한총련의 미군 부대 기습 시위 때문이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장관의 해임을 승단의 입장에서 보면 바라다보면 처벌하는 것과 같다. <울징>에서는 승려의 죄를 판단하고 징계하기 위한 '갈마법'을 할 때, 주재하는 승려나 인원수, 절차 등에 대해서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또 사찰을 거둬 확인하는 '백사갈마'를 통해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한총련이 미군 부대에서 시위를 한 것이 과연 치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인지 의문스럽다. 더욱이 아무런 피해가 생기지도 않은 사건을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선제는 도무지 모르겠다. 어쩌면 우리 국회는 우리 국민보다 미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작 온 국민이 슬퍼하는 일에는 그토록 입을 다물고 있으니 말이다.

<사분술>에서는 계율을 제정한 열 가지 의미 중에 '대중의 화합'과 '안락', '참고한 자의 안락', '정법을 오래 유지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중아함경>에서도 "계를 가지는 것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뉘우칠 일을 하지 않게 하는 데 뜻이 있고, 뉘우칠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은 즐거워하게 하는 데 뜻이 있다. 기뻐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든 악업을 그치게 하는 데 뜻이 있다"고 하고 있다.

과연 지금의 해임건의안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무엇을 그치게 하기 위한 것인가?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석실)

상식퍼즐

가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세로 태어난 27. 학사 석사 다음의 과정, 날리는 게 많은 사람을 비유.

<438호 '교리퍼즐' 정답>

광	영	별	천	백	의
명	산	대	리	심	전
회	지	혜	안	백	
기	상	학	능	진	승
문	법	이	변		
탁	발	승	사	상	사
선	방	생	지	생	
인	지	상	정	자	업
주	옥	식	계	부	의

세로

1. 독자지, 독점 2.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더 간절해 짐 3.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해 말하는 사람 4. 애완용으로 기르는 개 5. 아름답게 꾸민 말과 글 6. 방망이나 채로 때리거나 치는 방법 10. 사리에 맞고 은량함 12. 집안을 지켜 주는 신 13. 달마스님을 주제로 한 그림 17.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생류, 일체유정 18. 작전의 수행 방법이나 기술 20. 제 마음으로 스스로 번뇌를 일으켜 괴로워 함 '자기의 밭에 스스로 묶인다' 뜻 21.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를 비유, 물질을 부수어 미진인 된 만류의 수 22. 큰 자비 23. 거듭 새로이 함 25. 청정한 말이나 글.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품에도 최고!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 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 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뿔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향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걱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무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의 강력한 기가 발산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기가 발산되며 정전 발원시 일년 무아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 하실분께 꼭 개봉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의 높은 곳에 올려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금강염주는 12만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되어 일요일 공휴일 도 성당합니다.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195,000

금강염주사문의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통기소로 전국 어디서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용문구 권문동 177 (8층) B/D406호

상쾌한 속면 건강한 하루 신비의 은행석편지



저는 북한에서는 은행석입니다. 구조상 특성과 화학적 조성 과 강한 흡착 및 살균작용으로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 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붓어놓 으면 붓어는 약 20분이면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붓어는 10분 내로 정상하게 살아남 았다. 이외도 고급 난초 및 나무등도 건강하게 살아남았다. 배 계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 압 전신 등이 예방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월임이 떨어지기 기미가 없고 얼굴도 마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 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가와 같이 길게 숙면을 하며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몸이 가벼워지며 아침 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또한 전신증 기침을 하는 분은 베개속 에 은행석을 넣고 2시간 정도만 기침이 멍칩니다. 북한에서 소 량만 생산되는 희귀 광석으로 일부 고위층 인사들만 사용을 하고 있으며 저를 잘 믿고 베개속에 넣고 주무시면 건강하고 장수하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수험생, 수술을 받으신분, 불면증, 두통으로 고생하시는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노약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물론 누구든지 베 개속에 넣고 사용하시면 뇌에 관한 병은 걱정 없이 몸과 마음 이 편안해 지며 10년은 더 건강하게 사세요.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 명화

왜? 치아로 고생하세요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습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아픈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스님은 치아로 인한 고생은 없으세요.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를 사용해본 스님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일반치약처럼 사용하고 7일만 사용 하면 입냄새는 없어지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부러, 잇몸농증, 찬음식 뜨거운 음식을 드실 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 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되어요.

1set면 1년정도 사용하며 온 가족의 치아를 건강하게 다스 리는 생약초 치약입니다. 본 제품은 사용해 보신 분들에 의해 그 진가가 더욱 증명되고 있습니다.

* 1set 가격은 60,000원입니다.
문의전화는 (02)722-2890입니다.
◆농협: 360-12-046446 최 능우